



광주형일자리 정착, 교육명문도시 광주



동남갑 이안숙 후보

김정은 체제 청산! 자유통일 대한민국

북한의 3대 세습. 김정은 체제는 실패했습니다. '김씨조선' 즉 북한은 일제가 한반도 북부에 집중적으로 건설한 경제 산업 인프라를 뜯어먹으며 버텨왔습니다. 경제와 산업, 민생 등 체제 경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70년이 넘도록 정치, 사상, 종교의 자유가 없는 암흑과 같은 삶을 살아 왔습니다. 지금도 국경 넘어 만주에서는 북한 여성의 참혹한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청산하지 않고는 헌법상 우리 국민 인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거나 도와 줄수 없습니다.

북핵을 폐기하고 북한인권을 개선 하며 자유무역을 추진하여 북한의 경제 건설을 하루 속히 이뤄내야 합니다. 거짓 평화가 아닌 참된 자유를 안겨주는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기호 8번@이안숙 후보

공짜는 없다. 청년 빛 폭탄이다.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은 정당정치를 통해 대중을 설득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보다 가장 손 쉽고도 부작용이 큰 선심성 공짜의 남발 즉 각종 보조금에 의존해 정권을 창출하고 연장해 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유권자에 대한 뇌물이며 대표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폐해는 바로 전 국민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건설한 경제인으로서의 활동 가능성을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최단 시일 안에 모든 보조금을 철폐하고 사회의 건전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짜는 없다'는 원칙을 모든 정책과 국정 운영에서 관철해갈 것입니다.

- 정책 보조금의 원칙적 폐지
- 임금협상의 완전 자율화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전면적 개편
- 강제 할당제 및 여성가족부 폐지
- 다문화정책 전면 재검토
- 공무원 제도 개혁

기독교자유통일당의 정당투표 기호는 19번입니다



광주의 반기업 정서 해소!

이안숙 8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 21 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동남 갑 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8	기독교 자유 통일당	이안숙	여	1958.10.08. (61세)	정당인		현)세계비전교회 담임목사 7년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14,000	없음	14,000	없음	없음	해당없음	장남 : 육군 병장 만기전역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9,501	없음	없음	해당없음
후보자	4,525	없음	없음	
배우자	4,637	없음	없음	
직계존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비속	339	없음	없음	

4. 소명서

호남의 반기업정서 해소로 기업 유치해야

청년일자리 막는 민노총·전교조 해체

대한민국 경제의 압도적 성공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도입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 이를 따르고자 하는 국민의 위대한 결단과 피땀이 있었습니다.

일한 만큼 대접 받는 사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공부 잘 하면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보장된 사회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87년 6공화국 이후 귀족노조 민노총과 이념 편향적 전교조의 등장으로 우리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위 '귀족노동자'가



8 이안숙

국민 대다수의 정당한 보상을 착취하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교육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 편향 수업을 일삼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동성애

옹호·조장 안 돼!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을 결사 반대합니다. 인류보편 가치에 의한 남녀 전통결혼에 어긋나는 조항들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성적지향) 옹호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각종 인권조례 등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성인지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바꾸고, 낙태를 규제하고 생명 존중 사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군복무 중인 자녀를 동성애로부터 보호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항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성애 급진적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등 기독교 가치관을 파괴하여 교회 해체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문화맑시즘(Cultural Marxism)을 저지해야 합니다.

기호 8 번@이안숙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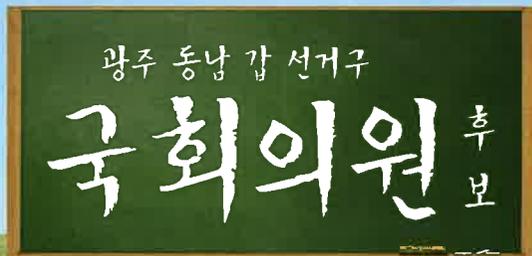
자유문명을 이끄는 한·미·일 동맹

안보에서부터 경제와 산업, 민생, 인권 등의 가치 기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인류의 진보와 문명, 개화를 대표하는 자유문명 해양세력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20세기를 넘어 새로운 밀레니엄의 국가

방략을 결정하는 기본 방침입니다.

우리 기독교자유통일당은 이를 위해 가장 분명하고 강력하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기독교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기호는 19번입니다.



아직 팔팔한 60대, 기호8번

이안숙 8

광주의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야 합니다.

- ✓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립니다. 호남이 가진 반기업정서로는 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이 오고 싶어 하는 광주를 만들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호남의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 ✓ 귀족노조는 해산되어야 합니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일부 금속노조와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공기관 노조는 국민앞에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때법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임금단체협상으로 정규직 귀족노조만 배 불리는 행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 ✓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윤창현 전)광주시장은 광주형일자리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민노총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노조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광주의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광주 동남갑 이안숙 8

기독교자유통일당의 정당투표 기호는 19번입니다

비례 순번

지역구는
기호 8번
이안숙

정당투표는
기호 19번
기독교자유통일당

- | | | | |
|---|--|---|--|
| 1. 이애란
한시단법인 자유통일문화원 회장
전국민대통합위원회 홍보대사 | 6. 고영일
한기독교자유통일당 대표
한법무법인 추원 가솔넷 대표 | 11. 박연수
한도올복스 대표
한(주)대내이밍 감사 | 16. 한호관
한)건강한사회를위한 국민연대 대표
한(주)원미응유 대표이사 |
| 2. 김승규
한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전(제27대 국가정보원장, 제56대 법무장관 | 7. 현숙경
한)비본인권여성연합 연구소 '세움' 소장
한)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 부교수 | 12. 지영준
한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한)한국회동성애대책협의회 실행위원 | 17. 이현영
한)국민총연합회 대표
전)바리새인 권재우기운동본부 이사 |
| 3. 주옥순
한)영마루대 대표
전)더구대 객원교수 | 8. 권오형
한)공인회계사, 세무사
전)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 13. 박은희
전)초종교사
한)차세대(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 | 18. 우종욱
한)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한)아들림세계선교회 대표이사 |
| 4. 김석훈
한)SND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한나라당 인사실 단원강 당협위원장 | 9. 오현민
한)태아사랑운동연합 경력직부 대표
전)New Community Mission Church 교육부 전도사 | 14. 임성훈
한)기독교자유통일당 미디어 홍보팀장
한)정금교회 시무 | 19. 정미라
한)예사랑 교회(무신)부무 담임목회 협동 목사
국무도 식용제조회사 대표 |
| 5. 송혜정
한)나태희재단(대)국민연합 대표
전)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 10. 윤재성
본지방교회중경회(장)주거봉사담당임
대국본 미디어 팀장 | 15. 이항
한)제주교육학부모연대 공동대표
한)제주도민연대 사무국장 | 20. 최봉식
한)한국직장선교연합회 지역네트워크 본부장
한)대전광역시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회장 |
| | | | 21. 한정원
한)세울골리서터 대표
2009년 인경 여성벤처기업인상수상 |

기독교자유통일당의 4대 공약

정당투표는 19번

- ✓ 공산 사회주의로의 내각제 개헌음모를 저지하겠습니다.
- ✓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겠습니다.
- ✓ 연5% 경제성장으로 시장경제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선진국 연수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백만원/1인, 연3조예산)

19